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4월 17일(금)

---(음력 3월 1일)---

Пятница

17 апреля 2026 г.

№ 15 (1218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18일은 세계 유산의 날(세계 기념물과 유적지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이 섬이라는 것을 밝혀낸 겐나지 네벨스코이 제독의 동상.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진료소, 생식건강 주간 진행 중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앙진료소에서 일주일간 생식건강 검진과 시험관아기 시술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다. 이 행사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발의한 지역 프로그램 '행복한 모성'의 일환이다.

올해 1분기 동안 생식건강 검진을 받은 인원은 여성 9168명, 남성 7986명이다. 이 중 10% 이상이 2단계 검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5년에는 총 519쌍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했으며, 이 중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118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상담 후 즉시 생식건강 검진 예약이 가능하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 적응 스포츠 시범·교육 센터 개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쿠아-시티' 수상레저센터 내에 장애인 적응 스포츠 시범·교육 센터가 들어선다. 사할린 주정부 지원으로 조성 중인 이 센터는 전문가들이 장애인에게 맞춤형 신체 활동을 추천해준다. '아쿠아-시티'는 극동 최대 대중 스포츠·휴식 센터다. 수영장과 워터파크를 갖췄으며 하루 최대 900명이 찾는다.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 주정부 총재는 "이곳은 장애인과 수술·부상 후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전문가가 검사한 뒤 적합한 운동을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 장소는 이미 선정됐고, 장비 구매도 진행 중이다. '아쿠아-시티' 스포츠 센터는 전문가 평가에서 국내 10대 우수 시설에 꼽힌다.

### 디지털·기술개발부 장관, '사할린 테크' 캠퍼스 건설 현장 점검

사할린주 디지털·기술개발부 알렉산드르 스네기료브 장관이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과학교육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 센터는 약 2,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시설의 공정률은 42%를 기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410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 중이며, 건물 외벽 마감과 내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스네기료브 장관은 "단순한 캠퍼스를 넘어 섬 전체의 과학과 경제 성장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과학교육센터의 주요 응용 분야는 석유·가스 및 대륙붕 프로젝트, 수소 에너지,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수산양식 재생 및 심층 가공 기술 등이다.

캠퍼스 면적은 8만 8천㎡ 이상이며, 현대식 강의실과 연구소를 비롯해 수영장, 체육관 2곳, 온실, 현대식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주지사, 세웨로쿠릴스크 지역장 접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알렉산드르 옘산니코브 세웨로쿠릴스크 지역장과 만남을 가졌다. 대화의 주요 주제는 2025년 7월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이후 해당 자치단체의 복구였다.

파라무쉬르 건물의 약 90%가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다. 지붕과 굴뚝은 난방 시즌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즉시 복구했다. 올여름에는 복구 작업이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다.

알렉산드르 옘산니코브 지역장은 "주택 재고 준비를 계속하겠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기분 좋도록 현관문을 수리해야 한다. 사회 기반 시설에서도 대규모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코사트카' 스포츠·레저 단지는 새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수영장 풀은 이미 물을 채워 누수 여부를 점검했다. 모든 장비는 정상 작동 중이다. 9월에는 수영장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웨로쿠릴스크의 가을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학생들은 288석 규모의 현대식 학교에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된다. 건물은 완전히 준비되었으며, 남은 것은 조경 공사뿐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 건물로 진료소가 이전할 예정이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학교 개교, 진료소 이전, 스포츠 단지 보수를 동기화하고 건설 성수기인 여름 내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수장은 또한 이 지역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에 33가구가 세웨로쿠릴스크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았으며, 10명은 노후 주택 보상을 선택했다. 앞으로 3년간 파라무쉬르에 공동주택 건설 계획은 없다.

주지사는 "노후 주택에 살면서 생산 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 사할린 남부로 이주하여 임대 아파트를 받는 것을 제안한다. 그곳에서 계속 무료로 살면서 지역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스포츠를 즐기고, 문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옘산니코브 지역장은 2026년 7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된다면서 자치단체를 위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민들이 당신을 지지한다면 나도 지지한다.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을 올바르게 이끌라"고 답했다.

## 사할린주, 승리의 날 맞아 '불멸의 연대' 대면 행진 개최

사할린주에서 전승일을 맞아 '불멸의 연대' 행진이 대면으로 열린다. 이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주재로 한 조직위원회 '승리' 회의에서 결정됐다.

주요 행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 주민들도 영웅들의 초상화를 들고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작년에는 총 2만 1천 명이 참가했으며, 그중 1만 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가를 행진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불멸의 연대'는 세대 간 통합의 상징"이라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유치원, 대중교통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는 160명의 베테랑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6명은 대조국전쟁 참전자이며, 이들 모두 '사할린주 명예 시민' 칭호를 받았다.

전승일을 맞아 참전자에게는 7만 5천 루블리, 레닌그라드 봉쇄 생존자와 강제수용소 수용자에게는 5만 루블리, '전쟁의 아이들'에게는 5천 루블리의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주정부는 군사 기념물 정비 작업을 5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에서 보낸 한 달, 모스크바 대학생들의 소감

모스크바시립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사할린 땅을 밟은 지 거의 한 달이 되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일본어를 배우는 3학년 율리아 리쿠르체와, 1학년 아샤 마례예와. 한국어를 전공하는 2학년 알렉산드라 이와노와, 레기나 사디코와.

이들은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한 달간 공부했다. 한편 사할린국립대 학생 5명도 모스크바로 떠나 같은 기간 배움을 이어갔다.

지난 14일 저녁, 새고려신문사 사무실. 떠나기 직전의 모스크바 학생들이 사할린에서의 소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사할린의 자연이었다. 한 학생은 “오호츠크해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눈만 뜨면 보이는 저 산들, 매일 봐도 안 질려요”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생은 “모스크바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이 여기 있어요”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의 빠르고 번잡한 일상에 익숙한 이들에게 사할린의 여유로운 풍경은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다. 눈, 바다, 강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평소 교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한 학생은 “이 곳에서는 태양도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낯선 곳에서 첫발을 떼기 어려울 때 마다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



을 줬다. 수업은 물론,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까지. 태권도 수업 시간에는 선배들이 안내심을 가지고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쳐줬다. “큰 도시에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만나기 어려워요. 사할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학생들은 이번 한 달을 ‘시험대’로 표현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독립심이 생겼다. ‘사할린테크’캠퍼스의 신축 기숙사에서 지낸 이들은 기숙사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의사소통 능력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특히 사할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일본·러시아 전통의 공존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문화 수업이었다.

그리고 사할린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말했다. 사할린에서 한식도 많이 맛보고 일본 식당도 가보았다. 루고위에 교회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민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 가장 맛있었다고 했다.

한 학생은 “사할린국립대에서 역사 시간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업 중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니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다만, “언어 수업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살짝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선택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K-팝,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에 매료

되어 시작한 언어 공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개인적 신념과 부딪히는 순간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할린 경험은 그 고민을 헤쳐 나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특히 아직 한국을 가보지 못한 한국어 전공 학생은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꼭 한국 땅을 밟고 싶어요. 살아 있는 언어 속에 직접 들어가보고 싶어요”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할린국립대학교 언론·역사·동양학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우리는 이미 3년째 모스크바 시립교육대학교와 학술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다른 대학의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런 교류 프로그램, 꼭 계속되어야 해요”라고 강조했다. 단 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할린의 푸른 바다, 우뚝 솟은 산, 따뜻한 사람들은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울림으로 자리잡았다.

(배순신 기자)

## 이모저모 사할린 '대학생의 봄' 축제 수상자 발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34회 '러시아 대학생의 봄' 축제 지역 예선이 막을 내렸다. 폐막식에는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참석해 우승자들에게 직접 시상했다.

그랑프리는 참가자 7명과 단체 7팀이 받았다. '아트' 부문에서는 홈스크 전문학교의 웨로니카 코르니엔코가 우승했다. '비디오' 부문에서는 '산데아트' 스튜디오가 수상했다. 최우수 기악 단체로는 사할린 예술전문학교의 '레트로' 앙상블이 선정됐다. 무용 부문 1위는 '아니메' 무용단이 차지했다. 보컬 부문에서는 가가크 아슬라난, 연극 부문에서는 다워드 오스타펜코가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았다.

오리지널 장르에서는 신체연극단 '드레워'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단체전 대학생 부문에서는 사할린 예술전문학교가, 학교 학생 부문에서는 제1리체이의 '리차(얼굴들)' 동아리가 최우수 단체로 인정받았다.

지역 예선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학생과 학교 학생, 취업 청년 등 1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 우승자들은 오는 6월 전국 대회에서 사할린 지역을 대표한다. 대학생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전문학교 학생은 하바롭스크에서 출전한다.

이 축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의한 국가 프로젝트 '청년과 어린이'의 일환으로 열린다.

###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Студенческой вес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XXXIV фестиваля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На церемонию закрытия приех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лично вручил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Гран-при получили семь участников и коллективов. В направлении «Арт» победила Вероника Корниенко из техникума Холмска. В категории «Видео» отметили студию SANDE-ART. Лучшим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стал ансамбль Retro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В танцах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Анимэ». Среди вокалистов жюри выделило Гагика Асланяна, а в театра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Давида Остапенко. В оригинальном жанре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пластический театр DREVO.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победил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лучшим признали объединение «Лица» из лицея № 1.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прошел с 6 по 11 апреля и собрал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 студентов, школьников и работающую молодежь. Победители представя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уровне в июне: студенты вузов выступят в Красноярске, а учащиеся колледжей — в Хабаровске.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 Хомск 시민 예카테리나 야코블레와, '올해의 마스터' 지역 예선 우승

전러시아 '2026년 올해의 마스터' 대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의한 국가 프로젝트 '청년과 어린이'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중등 직업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대회의 사할린 지역 예선에서 예카테리나 야코블레와가 우승을 차지했다. 지역 교육부 홍보실에 따르면 야코블레와는 홈스크에 있는 사할린 산업기술서비스 전문학교에서 '상업' 전문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총 37명의 후보 가운데 11명이 본선 참가자로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만이 최고의 중등 직업교육 교사로 선정됐다. 대회는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 교실 수업 시연, 학생들의 직업 흥미 유발 등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아나스타시아 키크테와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은 “올해의 마스터” 대회는 교사들의 딱딱한 보고서를 넘어, 그들의 직업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진솔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승자 예카테리나 야코블레와는 고향 사할린을 대표해 연방 대회에 참가하게 돼 기쁘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선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노비우렌고이에서 열린다.

이 대회 2위는 샤흐초르스크 광업 전문학교에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전문과목을 가르치는 알렉세이 와실리예브가 차지했다.

### Екатерина Яковлева из Холмска победила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Мастер года — 2026»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Мастер года — 2026» проводя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Сахалинс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педагогов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завершился победой Екатерины Яковлевой. Она преподает специальность «Торговое дело»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хникуме отрасл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ервиса в Холмске,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обра.

Всего из 37 кандидатов на островах отобрали 11 участников самого конкурс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выявили

только одного лучше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СПО. Конкурс включал три испытания: видеоролики с практиками, демонстрацию навыков на уроках, вовлечение студентов в профессию.

Сахалинский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Мастер года» позволяет увидеть не сухие отчеты педагогов, а живую энергию их профессии, настоящие истории.

Победитель Екатерина Яковлев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представлять родной регион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для нее и радостно, и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о. Финал проведут 28 сентября – 2 октября в Новом Уренгое.

Второе место в конкурсе занял Алексей Васильев из горного техникума Шахтерска, обучающий студентов по профессии «Мастер по ремонту и обслуживанию автомобилей».

### Кунашир섬 '잠자는 미녀'계단 건설 계속

Кунаши르섬에서 독특한 프로젝트인 보행자 계단 '잠자는 미녀'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계단은 유즈노쿠릴스크 상부 지역과 같은 이름의 만 해안을 연결하게 된다. 곧 전문가들이 전망대와 휴식 공간, 무대가 있는 원형극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의한 국가 프로젝트 '생활 인프라'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파벨 고밀렙스키 유즈노쿠릴스크 구역 시장에 따르면 현재 전문가들은 차양재 외장재 코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На Кунашире продолжают строить уникальную лестницу «Спящая красавица»

На Кунашире продолж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 пешеходной лестницы «Спящая красавица», которая соединит верхнюю часть Южно-Курильска с берегом одноименной бухты.

Вскоре специалисты установят обзорные площадки, зоны отдыха и амфитеатр со сценами. Работы ведут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Как сообщил мэр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авел Гомилевский,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пециалисты наносят покрытие на облицовку навесов.

### 사할린 종합도서관, '도서관의 밤' 주민 초대

연례 전러시아 행사 '도서관의 밤'이 4월 18일 토요일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에 헌정된다.

(8면에 계속)

## 사할린 씨름 선수들, 하바롭스크 변경주 민족무술 축제 참여

지난 4월 12일(일) 하바롭스크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 승리 기념,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와 이들의 가족들을 기리는 '하바롭스크 변경주 민족 전통 무술 스포츠·계몽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극동 6개 지역(하바롭스크 변경주, 유대인 자치주, 야쿠티야, 부랴티야, 연해주, 사할린주)의 선수 144명이 참가했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하바롭스크 변경주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의 전통 무술 종목이 포함되었다. 관객들은 나나이족의 바찬, 타타르족의 코레쉬, 우즈베크족의 쿠라쉬, 타지크족의 구쉬팅기리,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굴레쉬, 야쿠트족의 마스레슬링(막대 줄다리기), 그리고 한민족 씨름 경기를 흥미롭게 관람했다. 태권도 경기도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에 사할린주에서는 6명의 선수로 구성된 씨름팀이 출전했다. 사할린주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에 따르면, 총 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씨름 대회에서 사할린 선수들은 1등(2명), 3등(1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할린의 춘 키

릴(18세) 선수가 절대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26년 8~9월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세계 유목민 게임에 출전할 러시아 씨름 국가대표 자격을 획득했다.

러시아 민족회의 하바롭스크 변경주 백규성 지부장은 "스포츠는 민족 문화의 요소이며, 행사를 통해 문화가 상호 교류한다"면서 "스포츠는 인생 철학이며, 자신감과 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팀 정신과 애국심을 키운다"고 말했다.

또한 스포츠·계몽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민족 전통 무술이 러시아 민족 간 화합 강화와 건강한 생활 방식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원탁 회의도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행사가 스포츠 활성화뿐만 아니라 현대 러시아에서 특히 중요한 민족 간 화합 강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는 러시아 민족회의 하바롭스크 변경주 지부와 극동지역·시베리아 고려인단체연합회(회장 백규성)가 공동 주최했다.

(배순신 기자)

##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지난 4월 1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 김나지아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직원이자 '사할린 한인들'(텔레그램 및 Max 채널)의 채널 필자인 율리아와 김영희 씨는 학생들을 위해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상징주의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 부관장이자 역사학 박사인 율리아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자료를 이용해 복잡한 사할린 한인의 역사 주제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박물관 직원이자 민족학자인 김영희 씨는 동양 철학의 흐름을 토대로 한국의 상징주의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 의원이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부회장인 박 웨니아민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그는 강연자들을 소개하며 동양김나지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그리고 사할린주향토박물관 간의 3자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8학년 학생들을 위한 이번 주제 수업은 4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여



름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을 방문하여 체험형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다.

동양김나지아의 아나스타시야 이바노와 교장은 강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의 지속적이고 결실 있는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이 학교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동양김나지아 부지에는 과거 제8 조선학교와 제9 러시아 학교가 위치해 있었다. 이후 두 학교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현대적 교육 기관이 되었다. 오늘날 여기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취재: 배순신 기자)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마련

지난 4월 1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정기 노인정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올해 새로 부임한 사할린한국교육원 박수식 원장과 전 사할린주한인협회 박해룡 회장이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찾았다.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텔레그램 및 맥스(MAX) 채널 '사할린 한인들'의 필자인 김영희, 하이 옥자, 배 워토리아도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림종환 회장은 귀한 발걸음을 한 손님들을 맞이하며 어르신들께 소개했다.

현장은 언제나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여성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박수식 원장도 직접 한국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었다. 이날 참석자 중 최고령 어르신은 91세였으며, 오는 4월 90세 생신을 맞는 이복순



할머니도 모임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노인정 모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한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한인 1세 및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임은 매달 두 차례 열리며, 운영진은 참가자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배순신 본사 기자)

## 화태, 가라후토, 사할린

김이정

(전호의 계속)

나는 만식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식 엄마의 허둥대는 얼굴을 훑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붓물 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제야 지난밤 중얼거리던 석구의 말이 떠올랐다.

"기차도 움직이지 않고 석탄이 채탄장에 계속 쌓여 있는 기찻길이잖아." 도대체 어디로 또 끌려갔단 말인가.

"아까 여자들이 일본 반장한테 물어봤다 아이가. 어데로 갔냐고 하이 본토로 갔다 카더라. 사람들 쪽 운동장에 줄 맞춰 세우더니 석탄 실어 나르는 기차에 태워갔단다. 우야쁜 좋노."

겨우 일년 남짓이었다. 석구와 함께 보낸 시간은 겨우 일 년, 그와 나의 시간은 거기서 그치고 그는 다시 일본 본토의 탄광으로 끌려가 버렸다. "안 갈라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때리서 굴비 엮듯 묶어서 기차에 태웠다 카더라. 말로는 나중에 우리도 거로 보내준다 카는데 ....."

사교성 좋은 만식 엄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새로운 사정을 물어 낱았다. 그러나 기다리던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다. 가라후토에서 끌려간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연합군이 뱃길을 막아서 석탄 운반이 어려워지자 일본은 가라후토의 조선인들을 대거 본토로 데려갔다고 했다. 어떤 집은 광부 아버지와 학교 다니던 아들이 같이 끌려갔다고 했다. 소년을 갖 벗어난 열다섯 살 아이를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함께 끌고갔다고. 늘 소음이 끊이지 않던 합숙소가 갑자기 텅 비어 버렸다.

적막한 합숙소로 저녁 이내가 내려앉고 있었다. 탄광촌은 화차의 기적소리도 작업장의 소음도 굴뚝의 연기마저 멈춰버렸다. 그제야 가라후토 이 낮은 땅에 나 홀로 남았다는 실감이 났다. 검은 석탄으로 뒤덮인 굴짜기에 거대한 채탄장과 검은 철로. 높은 망루와 수용소 같은 막사와 멀리 보이는 자작나무숲이 처음 보는 풍경처럼 낯설었다. 석구는 어디로 간 걸까. 문만 열면 눈발이 보이고 야트막한 산자락에 웅기종기 이마를 맞대고 있는 고향이 문득 떠올랐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커멓고 시커먼 땅, 도대체 여긴 어디일까. 그는 어디로 가고 나는 왜 이곳에 혼자 버려진 것일까. 그제야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니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오도록 겁조차 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석구를 만나려 간다는 희망 덕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어디로 가서 그를 찾는단 말인가. 화태, 아니 가라후토섬도 아닌 일본 땅 어디로 가서 다시 그를 찾는단 말인가. 나는 낮이 나간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석구가 없는 가라후토는 수용소일 뿐이었다. 끌려간 사람들에게선 편지 한 장 오지 않았고 남은 가족들을 그들이 간 곳으로 보내준다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규슈와 군함도로 끌려갔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아 떠날 수도 없는 몸이 돼버렸다. 석구가 떠난 지 두 달 후에야 나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를 낳은 곳은 함바집이었다. 석구가 일하던 탄광은 끝내 폐광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흩어졌다. 나는 그가 없는 시커

먼 골짜기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니 먹을걸 구하기 위해선 그곳에 머물 수도 없었다.

만식 엄마가 벌목공을 상대로 함바집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탄광이 있는 산골짜기를 벗어나면 삼나무 숲이 뽕뽕한데 조선에서 끌려온 벌목공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만식 엄마라도 같이 있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를 따라갔다. 임신한 몸으로 밥은 먹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혼자 지내는 것 보다는 만식 엄마와 같이 있는 게 훨씬 낫달만했다.

여름이 시작되는 칠월 초, 너는 함바집 합숙소에서 만식 엄마의 손에 안겨 세상에 나왔다. "석구네야, 아들이야 아들."

만식 엄마가 익숙한 솜씨로 아이를 받아 주었다. 온몸이 낱알이 찢어 지는 고통 끝에 나온 너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울기 시작했다. "꼭 다문 입매가 애미 뚝 닳았다."

만식 엄마가 모처럼 환히 웃었다.

네가 태어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 해방이 되었다. 가라후토섬의 우리는 한 달이 지나야 그 소식을 들었다. 일본이 패망했다고 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황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석구가 풀려난다는 게 아닌가.

남편이, 아버지가 본토로 끌려간 이중 징용자 가족들이 모였다. 남편과 아들이 같이 끌려간 집이었다. 모두들 중구난방 웅성거렸지만 일단은 집을 꾸러놓고 기다리자고 했다. 조선으로, 고향으로 가야 하니까. 짐이랄 것도 없었다. 가라후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위해 집을 늘이지도 더하지도 않고 살았다. 보따리 한두 개가 전부였다.

언젠가부터 가라후토의 조선사람들이 전부 오토마리 항구로 모여든다고 했다. 가라후토로 오려면 누구나 거쳐온 항구 오토마리. 나도 만식 엄마와 만식, 그리고 너를 안고 귀향길에 올랐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므로, 아니 석구가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너를 안고 오토마리로 갔다. 기차가 다니는 곳은 기차를 타고, 멈춘 구간은 걸어서, 운이 좋으면 트럭을 얻어 타고 보름이나 걸려 오토마리로 갔다.

오토마리 항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일본사람들은 작은 배라도 구해 훗카이도로 떠나거나 자신들을 데리러 올 배를 기다렸다. 조선사람들은 배도 구할 수 없어 무조건 기다렸다. 항구가 보이는 언덕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 주린 배를 견디며 배가 오기만 기다렸다. 수 평선으로 노을이 셀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자작나무 잎들은 노랗게 물들어갔다.

간간이 눈이 왔다. 곧 폭설이 쏟아질 것을 알기에 그전에 이 추운 섬을 떠나고 싶었다. 아니 그 전에 석구가 돌아와야 했다. 그래야 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럴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같은 사람들이 풀려든 오토마리 항구 언덕에는 천막과 합숙소가 들어서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조선말이 장날처럼 넘쳤다. 일본 사람들을 태워갈 배가 먼저 왔다. 그들은 바리바리 쌀이 샷집에 키우던 고양이 밥그릇까지 다 싸가지고 떠났다. 나중에 조선 사람들을 데리러 배가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ские борцы ссирым отличились в Хабаровске

12 апреля в Хабаровске прошёл «Спортив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посвящённый Побед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героям СВО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44 спортсмена из шест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ЕАО, Якутия, Бурят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охватила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Зрители увидели нанайскую борьбу на поясах Вачан, татарский Корэш, узбекский Кураш, таджикск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борьбу Гуштингири, азербайджанскую борьбу Гюлеш, якутское единоборство Мас-рестлинг – перетягивание палки, корейскую борьбу на поясах – ссирым. Прошли такж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хэквондо.

Делегация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корейскую борьбу ссирым.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Алексей Чун сообщ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шестью спортсменами. Всего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сиры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60 человек. Сахалинцы заняли одно третье место и два перв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команды Кирилл Чун (18 лет)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 абсолютной категор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еспечив себе место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 ссирым. В её составе о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VI Всемирных играх кочевников,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Кыргызстане в августе-сентябре 2026 года.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Бейк Кю Се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отметил, чт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пользуется все большим вниманием – это отражается и на количестве самих участников, и на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зрителей, желающих погрузиться в особ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в Хабаровске также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посвящённый важной теме – влиянию занятий национальными видами единоборств на укрепление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Национальные виды единоборств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характера, укреплении воли и командного духа. Они способствуют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культур, ч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России.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отметили,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спорта, но и укреплению единства сред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что я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м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портив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выступи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Хабаров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ссирым

##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стартовал новый проект

В субботу, 11 апреля, в 8-х классах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и необычные уроки. Сотрудники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авторы канал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Telegram-канал и Мах-канал) Юлия Дин и Ким Ен Хи провел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воего рода этнолекторий.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на основе свидетельств очевидцев просто и доступно раскрыла сложную тему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трудник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этнограф Ким Ен Хи, опираясь на философские течения Востока, рассказала учащимся о корейском символизме.

Открыл встречу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ЮСМОК Вениамин Пак. Он представил лекторов и рассказал о новом проект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ЮСМОК) и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Тема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для восьмиклассников продлятся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а на летних каникулах ребята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стенах музея,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Директор гимназии Анастасия Иванов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гостей и выразила надежду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лодотво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именно здесь: исторически на месте гимназии располагались корейская школа № 8 и русская школа № 9. Их объединение заложило фундамент современного учеб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где сегодня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и японский языки.

Виктория Бя

От редакции: 30 марта 2026 год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а передана петиция с требованием увеличить квоту для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атериал об это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предыдущем номере газеты.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еревод статьи и петиции.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олжны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пока живы

### Петиция с требованием увеличить квоту на ПМЖ передана в Чхонвадэ

30 марта 2026 года в 11:30 в Чхонвадэ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здании Ёнпхунмун)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освящённая обсуждению пробл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иску путей их решени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Квон Ген Сок, чле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ассоциации Ли Тин Сон и Баланюк Сун Ок,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ь KIN (Глобаль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е Сан Гу. Со сторон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х приняли двое сотрудников, включая Ким Хён Тхэ,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внимательно выслушали обращ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Главной целью встречи была передач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петиции с просьбой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до 500 человек в год».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вон Ген Сок разъяснил суть обращения и передал его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ставителю. Петицию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писали 29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указали на парадокс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специальной законе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важды вносились поправки, расширяющие круг лиц,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фактическое число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ежегодно сокращается — с 350 человек в 2021 году до 234 человек в 2026 году.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проблемы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ежегодную квоту — до 500 человек. Особый акцент был сделан на преклонном возраст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участники выразили настоятельную просьбу дать им возможность ступить на родную землю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ока они ещё живы.

Помимо передачи петиции, участники подробно обсуд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 процессе адаптации и обустройства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Была подчеркнут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

кой Корея и Сахалином, а руководитель KIN Че Сан Гу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центры отдыха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еобходимо внимательнее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мнению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Отдельно была подчеркнута важность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тор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для детей того поко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утратили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мимо этого,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проблемы с написанием имён (из-за разницы в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транскрипции) при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упругами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вопрос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реть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лучивших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а также ре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перезаключением договоров аренды жилья в Корею.

После этого состоялся обмен вопросами и ответами. На вопросы о проблемах,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пожилые люди при посещении центров досуга (кёнодан), ответил Че Сан Гу. О том, как в реальности проходят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дробно и живо рассказали члены комитета Ли Тин Сон и Баланюк Сун Ок.

Выслуша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тветственный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им Хён Тхэ сказал: «Прошу прощения за то, что вам пришлось проделать такой долгий путь. Ваша петиция официально принят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 вопросам, требующи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будет налажено а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чтобы профи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могли совместно обсудить их решение. Также он добавил, что ряд проблем требует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или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и пообещал изучить эти моменты.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он попросил руководителей ассоциации и организации KIN продолжать сообщать о возникающих трудностях и в будущем.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KIN)

## ПЕТИЦИЯ

[Петиция об увеличении квоты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ПМЖ)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о 500 человек]

Глубоко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Выражаем Вам глубоку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Вашу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и неустанный труд на благо народа,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защиту прав граждан и создание видимых позитивных перемен в государстве.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80-летнюю, полную горечи боль ожид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мае 2020 года был принят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январе 2024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внесли в него поправки, расширив круг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ьи: вместо «один ребёнок и его супруг(а)» — «дети и их супруги».

Кроме того,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частичных поправках к данному закону,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депутатом Ян Мун Соком (ключевое положение — включение супругов и детей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программу поддержки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и обустройства), был одобрен комите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ноябре и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окончательно принят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1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Однако реальность идёт вразрез с этими надеждами. Хотя круг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по закону расширил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квота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фактически сократилась. Ежегодная квота была резко уменьшена: с 350 человек в 2021 году до 270 человек в 2022–2024 годах и до 234 человек в 2025 году.

Мы убедительно просим Вас разрешить эту парадокс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когда закон расширяет прав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о сокращение квот делает порог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ещё выш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изываем Вас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ежегодную квоту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как минимум до 500 человек по следующим причинам:

- Учитывая возраст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ближайшие 3–5 лет — это их последний шанс. Пожалуйста, установите, хотя бы на временной основе, квоту в 500 человек, чтобы реализовать их «возвращение при жизни», а не «возвращение после смерти».

- Возвращение всех детей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членов семьи невозможно без расширения квоты.

Глубоко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Чем больше были ожидания от изменения закона, тем сильнее отчая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еред «узкими дверями» квот. Мы должны дать им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нас не бросило».

Пожалуйста, откройте двери для 500 человек в год. Это минимальное проявление уважения и долг государства перед людьми, которых страна не смогла защитить 80 лет назад. Искренне молимся о том, чтобы благодаря Вашему решению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могли встретить тёплую весну на родине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семьями.

Благодарим Вас.

2 марта 2026 года  
Председатель Все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Квон Ген Сок и все 29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80% допбюджета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о к июн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договорились реализовать к июню 80%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утверждённого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влияние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изиса на отечественную экономику. Депутат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Ан До Голь, член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реагированию на ближневосточный кризис,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скорейшего исполнения бюджета. Четыре крупнейшие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компании страны обеспечили запасы нефти объёмом 30 млн баррелей посредством своп-договоров.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объявят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выплат по автострахованию, поскольку многие водители стали меньше пользоваться личным автотранспортом, - отметил Ан До Голь.

##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отдаст РК приоритет в поставках нефт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пообещала отдать приоритет в поставках нефти РК, которая ищет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маршрут через Красное мор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12 апреля в интервью телеканалу KBS1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К Ким Чжон Гван. По его словам, Сеул настаивает на направлении пяти судов под корейским флагом в саудовский портовый город Ямбу на побережье Красного моря, чтобы помочь созд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маршруты снабжения из-за закрытия Ормузского пролива. «Мы готовим меры, позволяющие нашим судам использовать маршрут через Красное море, включая возможность их сопровождения эсминцем, действующим в составе вои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Чхонхэ», - отметил Ким Чжон Гв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импорта сырой нефти за счёт увеличения закупок у США и Казахстана, - добавил он.

## Фильм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просмотрам

Историческая драма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стала вторым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фильмом в ис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Как сообщила дистрибьюторская компания Show Box,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11 апреля фильм привле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6 млн 280 тыс. зрителей.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уступает только военной эпопее 2014 года «Битва за Мёнрян», которую посмотрели 17 млн 610 тыс. зрителей. Однако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уже стал самым прибыльным фильмом, собра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0 апреля 156 млрд 900 млн вон (105 млн 422 тыс. долларов). Режиссёр Чан Хан Чжун в фильме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переосмысливае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через призму вымысла, рассказывая о невероятной дружбе между старостой деревни и свергнутому королём Танчжоном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во время его ссылки.

## РК увеличи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EDCF

В рамках плана Фонд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EDCF) на 2026–2028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становило целевой показатель ежегодного одобрения в среднем 3 трлн вон (2 млрд 1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новые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азвивающихся или менее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РК Ку Юн Чхоль, комментируя новый план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тета EDCF, состоявшемся 13 апреля в Сеуле. РК запустила программу EDCF в 1987 году, предоставляя долгосрочные кредиты под низкие проценты для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оста в странах-получателя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будут внедрены элемент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в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проекты, финансируемые EDCF.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держать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ах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глобальном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нта. РК расширит поддержку EDCF на страны с высо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ах, таких как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е минералы, чтобы помочь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РК перевезли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42 млн человек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услуг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корпорации KORAIL и компании SR,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март составило 42 млн 11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2,1%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пассажиров связано как с расширением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так и с повышением цен на неф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нфликт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разразившегося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Это привело к сокращ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лич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увеличению спроса на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Только в марте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транспорт перевёз 14 млн 62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2,4%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и на 7,3%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RKI

##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вирту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шедевров Эрмитажа с эффектом погружения

Российский музей Эрмитаж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ит за пределами РФ масштабный цифровой проект. Примет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Южная Корея. Выставка Hermitage Light откроется 30 апреля в Сеуле и продлится до 31 июля, став примеро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зволяющего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коллекции, насчитывающей миллионы экспона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экспозиция разместится в 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 районе Санам (Maro Oil Depot), где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ложат не классический музейный формат, а иммерсивное погружение. С помощью современных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будет воссоздана атмосфера Зимнего дворц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 исторического ядра Эрмитажа.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ещают, что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буквально "пройтись" по залам бывше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резиденции, не покидая Сеул.

Эрмитаж, основанный в 1764 году при императрице Екатерине II, сегодня хранит более 3 миллионов произведений искусства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артефактов. Как отмечают в Корее, если уделять каждому экспонату всего по одной минуте, на полный осмотр уйдет около шести лет. Сеульская выставка предлагает своеобразную "сжатую версию" - знакомство с ключевыми произведе-

ниями в рамках одного визита.

В экспозиции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около 50 работ, в том числе произведений Рембрандта, Леонардо да Винчи, Клода Моне и Анри Матисса. Все они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в формате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ых цифровых проекций в натуральную величину, с детальной передачей фактуры и цвета, что должно создать эффект присутствия внутр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речь идет о первом подобном проекте Эрмитажа за рубежом. Ожидается, что выставка станет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запланирован визит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музея Михаила Пиотровского, что придает событию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ес в академ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реде.

Выбор площадки также символичен: бывшая нефтяная база, превращенная в 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танет фоном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богатства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Как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траст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среды и роскоши русского барокко должен усилить впечатление от выставк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проект привлеч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местной публи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Президент отчитался о своих доходах

Сеул, 11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2025 года совокупные активы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жэ Мёна составляли 4,98 миллиарда вон (3,3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66 миллиарда вон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Эта сумма не включает ном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такие как корректировка цен на недвижимость. Наибольший прирост пришелся на доходы от роялти. Ли сообщил, что заработал 1,56 миллиарда вон на продаже книг, в основном благодаря публикации в период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книг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это делают люди». Кроме того, Ли сообщил о доходе в размере 250 миллионов вон, полученном от сем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что это свадебные подарки, полученные во время бракосочетания его сы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Ли вместе с женой владеет одной квартирой в Соннаме,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тоимостью которой по официальному данным составляет 1,68 миллиарда вон, что на 15,7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также выросло.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активов 48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помощников президента составил 2,75 миллиарда вон. 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по правовым вопросам Ли Чан Хён отчитался о самом крупном состоянии в 13,41 миллиарда вон, что связано с прибылью от акций Tesla, оформленных на его имя и на имена его детей. Среди члено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стартапов Хан Сон Сук задекларировала самые крупные активы — 22,3 миллиарда вон, за ней следует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Чэ Хви Ён с 17,7 миллиарда во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Мин Сок задекларировал активы на сумму 330 миллионов вон. У 1903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чьи данные подлежат раскрытию,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задекларированных активов составил 2,09 миллиарда вон, что на 148 миллионов вон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88,5 %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также сообщили об увеличении своих активов.

##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ищевые гиганты развернули "битву" з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Круп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усиливают экспансию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который все чащ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оста. Очередным шагом в этой борьбе стало решение компании Nongshim созд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структуру в РФ - фактически это признан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важ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и ставка на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позиций.

### Ставка - на лапшу-рамен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трасли, уже в июне в Москве начнет работу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Nongshim Rus. Она станет опорной базой не только для России, но и для все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НГ, включая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В Сеуле прямо называют Росс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узлом", соединяющим европейские и азиатские рынки, а также одним из самых быстрорастущи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орейские маркетологи указываю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о оценкам аналитиков, к 2030 году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лапши-рамена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1 млрд при ежегодном росте более 10%.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драйвер - стремитель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только за 2025 год импорт 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в Россию вырос на 58% и превысил \$52 млн.

При этом корейская продукция уже заняла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домин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Бренд "Доширак" (компания Paldo) контролирует около 54% рынка в сегменте instant ramen, тогда как ближайший конкурент Rollton - примерно 21%. Продажи "Доширака" в России за все время превысили 5 млрд упаковок. Быстро растет и популярность острой лапши от Samyang: ее доля увеличилась до 9%, а продажи подскочили более чем на 80%.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же сейчас на почти две трети продаваемой в России лапши - корейская.

На этом фоне Nongshim, которая пришла позже своих конкурентов, намерена не вступать в прям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в бюджетном сегменте, а будет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более дорогую продукцию - от 200 рублей за упа-

ковку. В Россию планируется активно поставлять такие бренды, как Shin Ramyun, Neoguri и Kimchi Ramyun, а также новые линейки.

Расширение будет идти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каналам: через крупнейшие розничные сети X5 и "Магнит", а также онлайн-площадки Ozon и Wildberries. Поставки обеспечит экспортный завод в Пусане, запуск которого намечен на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Не лапшой единой

Nongshim -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игрок в этой "битве за Россию".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 целом активно занимают освободившиеся ниши после ухода западных брендов.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ых успехов добилась Orion, которая за счет локал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адаптации продукции под вкусы россиян нарастила выручку до рекордных уровней.

Недавно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компания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го своего завода, куда вложено около 160 млн долларов. Запуск намечен на конец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овый завод должен удвоить мощ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Orion. Существующий завод работает в авральном режим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уровень загрузки конвейеров уже превысил 123%. Продажи в России за три года выросли почти в четыре раза - с 890 млрд вон до 3394 млрд.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особенно "зашли" в России пирожные чокпаи, ставшие уж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оссийским лакомством. Одни только продажи чокпаев принесли компании дохода более 150 млн долларов.

Новый завод увеличит числ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линий с 15 до 31 и доведет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до 7500 млрд вон. При этом Росс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не просто как локальный рынок, а как база для экспансии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В стратегии Orion Россия закрепляется как третий ключевой центр роста наряду с Китаем и Вьетнамом.

Активно растут и продажи напитков Lotte, а также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 от сладостей и снеков до соуса и спиртног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 Продолжим улучшать жизнь люд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пределила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н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Главной темой в повестке стала разработка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2026-2030 годы.

Юрий Трутнев подвел итоги развития округа, отметив, что показатели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бгоняют общероссийские примерно в 1,5 раза.

—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едыдущей стратегии нам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неплохих результатов. За 10 лет инвестиции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ДФО выросли на 286%, значительно обогнав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68%. Тоже боль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Обрабатывающ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 на 223%. Объем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ырос на 244%. Считаю важным, что доходы регионов увеличились более чем в 2 раз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уч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ы должны разработать и до 1 августа утвердить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2026-2030 годы. Она должна стать не просто следующим шагом, она должна стать тем инструментом,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продолжать, но и повыша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в регионах, улучшать, прежде всего, жизнь люде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имером того, чт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астет уровень жизни и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людей, являетс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регион вошел в пятерку лидеров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АСИ. Кроме того, регион добился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темпа роста инвестиций с 2019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составил 452 млрд рублей, что на 19,8% превышает уровень 2024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островные в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у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этих позиций.

В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также сделан акцент на развитие логистических и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центров России.

— Перспективы отрасли мы связываем с проектом «Сахалин-3», которы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ступает в активную фазу. Проект предполагает освоение Кириновского и Южно-Кириновск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й газа. Также мы готовимся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завод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газового конденсат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полнен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е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нефтесервисных услуг. На базе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уже работает перв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рвис по ремонту и обслуживанию газовых турб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и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ля отрасли. В этом году СахГУ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опорного вуза «Газпрома».

На юге острова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Логистический технопарк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Здесь появятся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и логистические мощности, центр дистрибуци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крупный контейнерный терминал.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расшири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боты с рынк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а также создас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а повестку заседания также был вынесен вопрос о подготовке регионов к паводковому и пожароопасному периода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работа ведется превентивно.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одтопления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регионе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обследуют русла рек, затем их освобождают от затворов. Беспилотная авиация привлечена и к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му мониторингу. Как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лагодаря этой работе площадь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в области сократилась в 40 раз.

##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дорог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вершится к 1 июля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Макаров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дорог. В граница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роходит 122 км федеральной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Дорогу обследовали и выявили 1800 новых дефектов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оставшихся после зимы.

— Устранить их должны к 1 июля. Такой срок обозначен для всех север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а юге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завершится на месяц раньше. Как только установится погода,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орачивать работы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асть ям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и литого асфальт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работать при минусовых температурах.

— Ждем, когда земля оттаает. В мае запустят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е заводы, и будем закрывать большие объемы горячим асфальтом. Техника, материалы, люди — все

есть, —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участка Артем Одегов.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рил также, как пережили зиму участк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большинстве из них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сохранилос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подтверждают цифры: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осле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на островных дорогах уменьш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ям. Такую статистику подтверждают и волонтер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обследовании трасс.

— Наши волонтеры ежегодно подключаются к мониторингу дорог и дворов. Сотрудники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благодарят нас за помощь. С помощью волонтеров работа идет быстрее и эффективнее, — 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полком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Ирина Киселева.

Отметим, на дорогах Сахалина устранили уже более 1330 дефект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3712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лидерах находи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ктивизируется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сег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есенне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островных автодорог выявлено свыше 6700 дефект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около 41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ряде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и на Курилах мониторинг еще продолжается.

##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озобновили работу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х заводов и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дорог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завод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мени Федот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оцен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активному сезону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уже запустили две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е установки, способные производить до 100 тонн смеси в час.

С установлением положительных температур дорожн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ешли о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литого асфальта к горячему. Первый используют в межсезонье для устранения небольших дефектов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образовавшихся за зиму. Второй — позволяет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производить большие объемы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сновные силы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в центре — привести улицы в порядок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к майским праздникам. К 1 июня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по всему областному центру, после работы продолжатся в плановом режиме. Такой же срок глава региона установил для всех юж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качество дорожных работ.

— Необходим контроль на всех этапах. Когда стандарт качества соблюдается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дорожное покрытие годами служит автомобилистам и пешехода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атериал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асфальта, проходят проверку в лаборатории и получают паспорта. Затем экспертиза ждет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ую смесь.

— Рецепт подбирается так, чтобы она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а ГОСТам. Перед запуском завода мы провели три пробных замеса, отобрали пробы и убедились в их качеств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изготовили более 300 тонн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й смеси, которая уже уложена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а, —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Константин Сапрыкин.

Перед заливкой асфальта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место ремонта — вырезать карту, осушить, убрать грязь и мусор. Далее переходят к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 здесь учитывают температуру смеси, количество проходок укладчика. После делаются контрольные замеры, насколько ровным получилось покрытие.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стандарта следит как подрядчик, так и специалис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акой подход к содержанию дорог,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губернатором, дал реа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 Отмечу положительную динамику. Из года в год в городе количество дефектов, оставшихся после зимы, уменьша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оно снизилось почти на треть, — отмети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дрей Ковальчу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2025 году было выявлено около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ефектов, в 2026-м — 3600. Более 40 процентов — около 1700 «квадратов», уже охватили текущим ремонтом. Исправлено 770 повреждений.

## На Сахалине обновляют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ЦНТ) нача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Благодаря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Семья», инициированному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десь появятся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Президент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о задача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сферы культуры. Он считает, что это не просто приоритет, а важный элемент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Прошу активнее обеспечивать модернизацию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х оснащение, содействовать творческим деятелям и объединениям»,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26 марта.

Модернизация в ОЦНТ затронет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зон. В зрительном зале появится новое сценическое оформление — кулисы, а также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затемнение окон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ректной световой атмосферы. В зале хореографии установят новую систему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учреждения обустроят выставоч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 Модернизация учреждения — важный шаг в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гиона, — комментирует Виктор Степанов,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Н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оздадут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позволят нам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качеством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услуг, а также чаще знакомить сахалинцев с работами местных мастеров. Мы убеждены, что эти изменения позволят вывести работу Центра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и сделают его ещё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тали возможны благодаря побед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смотре-конкурсе «Россия: этнический комфорт». Фестиваль акустической и электронной эт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Этн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знан лучшей практикой по сохране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онкурса. В результате учреждение вошло в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культуры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и получило целев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которое было дополнено региона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еляетс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у сохранения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существует проект «Этна»,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такую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о, что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у нас сегодня име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улучшить наше учрежде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Галина Саменко,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ОЦН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ОЦНТ заключены все контракты, ведётся работа с подрядчиками.

Все рабо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ведутся строго по график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бновлённое и соврем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ОЦНТ смогут оценить как посетители, так и артисты. А фестиваль «Этна», признанный лучшим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одолжит объединять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традици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 акту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жанры, привлекая тысячи гостей.

## Ка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делали жизнь людей удобнее с помощью одной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во внедрению цифровых решений для людей. Флагманский проект региона — платформа «Острова.65», созданна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2021 году. Сегодня она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130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десятки сервисов — от записи к врачу до покупки авиабилетов.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тали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 у туристов. Из-за этого билеты на самолёты и паромы часто раскупались заранее, и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было сложно попасть домой, съездить на лечение или учёбу. Люди обращали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с просьбой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С 1 марта 2026 года заработала новая система: теперь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могут покупать билеты на внутренние рейсы по специальным, более выгодным тарифам.

Всё реализовано через платформу «Острова.65». При покупке билета достаточно поставить галочку «Ж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стема мгновенно проверяет регистрацию через Госуслуги и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аво на льготный тариф. Это быстро, честно и прозрачно.

Платформа уже стала настоящим цифровым помощником для жителей:

— Запись в поликлинику и доступ к результатам анализов — без очередей и звонков.

— Оформление рыболовных путёвок занимает всего 30 секунд.

— Геолокация рыбных ярмарок — всегда знаешь, где купить свежую рыбу.

—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 все скидки и сервисы в одном месте.

— Оповещения о ЧС и метелях — важные уведомления приходят прямо в приложение.

— Онлайн-табло аэропортов и возможность отправить электронное обращение в органы власти.

«Мы строим платформу вокруг человека, а не вокруг бюрократии. Наша цель — чтобы кажды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чувствовал заботу и уваж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Острова.65» — это не просто набор сервисов, а единая цифровая среда, которая экономит время, нервы и делает жизнь проще.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звивать проект, прислушиваясь к людям»,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Снегирев.

Тепер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още планировать поездки, получать госуслуги и решать бытовые вопросы. Всё, что нужно для жизни, собрано в одном приложении — удобно, быстро и под руко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 지원 대상에 재외동포 포함 여부 불명확… 현장 혼선 지적-F-4 비자 동포 "경제활동·정착 기여" 정책 배제 안 돼" "형평성·일관성 확보해야"… 정부에 기준 공개 요구

정부의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을 둘러싸고 재외동포 사회의 '포용 기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회장 김세광)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의 유류비·교통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공개된 보도자료와 안내문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동포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정책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는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의 정책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F-4 비자 소지자는 단기 체류자가 아닌 장기 정착과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라며 "이번 정책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일부 정책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김세광 의장 (오른쪽)과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왼쪽)이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포함 여부가 검토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 역시 포용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외동포 정책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 단체는 ▲지원 대상 및 적용 기준의 조속한 명확화 ▲F-4 비자 소지자 포함 ▲재외동포 대상 정책 안내 강화 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형평성과 포용성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배려받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확정

### 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본격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할 예정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월)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 동포 네트워크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들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모

색하고,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동포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동포사회 요청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동포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외 인식 개선을 통해 귀환 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국내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동포청년 인재를 적극 유치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K-브랜드를 활용한 한상경제권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재외동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의 이행 원년으로 삼고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대상자인 동포들의 목소리가 시행계획 이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동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상 5대 목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활용 미래 성장동력 확보

(재외동포청 제공)

# 농심, 러시아 법인 설립… '유라시아 라면 로드' 연다

### 6월 모스크바 '농심 러시아' 출범… CIS 시장 공략 교두보 확보러시아 라면시장 연 10% 성장… 프리미엄 K-라면 전략 본격화 2030년 매출 3000만 달러 목표…유통·이커머스 병행 확대

농심이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 유럽을 넘어 유라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농심은 오는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판매법인 '농심 러시아(Nongshim Rus LLC)'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네덜란드 유럽법인 설립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의 추가 거점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독립국가연합) 시장까지 아우르는 '유라시아 라면 벨트' 구축 전략의 일환이다.

러시아 라면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기회의 시장'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K-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확산 영향으로 한국 라면 수요가 급증, 2025년 한국 라면 수입액은 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농심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중저가 중심 시장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라면'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전략은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한 서부 시장 선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러시아 경제력의 70% 이상이 집중된 서부 지역을 우선 공략한 뒤, 중부 및 극동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대형 유통망인 X5, Magnit 등 연방 체인 입점을 확대하고, Ozon·Wildberries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브랜드관을 구축해 온·오프라인 유통을 동시에 강화한다.

제품 공급은 부산 녹산 수출전용공장이 맡



농심 해외법인 세계지도 그래픽 이미지[농심]

는다. 농심은 신라면, 너구리, 김치라면 등 기존 인기 제품과 함께 '신라면 톰바', '김치볶음면' 등 신제품을 빠르게 투입해 시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현지 밀착 전략이 병행된다. 주요 축제와 연계한 팝업스토어, SNS 채널 '브론탁테(VK)' 활용 등 현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농심은 이번 러시아 법인을 단순 판매 거점을 넘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의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로 영업망을 확대해 유라시아 전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심 관계자는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러시아 법인을 기반으로 CIS 전역까지 영토를 확장해 2030년 매출 300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 재외동포청장,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

###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논의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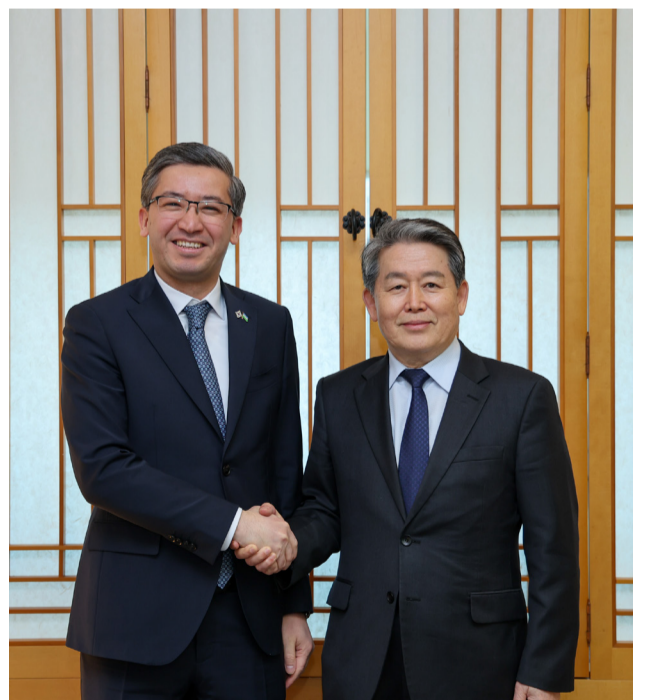
\* 고려인동포 :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또는 그 친족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고려인동포법 제2조)

김 청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내년(202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9~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 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정부



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사할린주 종합과학도서관은 30개 이상의 주제별 공간에서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도서관 홍보실이 전했다. 행사 공간은 오후 6시에 문을 연다.

방문객은 '마스코트: 방랑하는 다정함'과 '사모와르 옆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지역 장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우정의 섬' 공예품 박람회를 둘러보고, '착한 마음' 센터를 후원하는 '착한 상자'자선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늑한 '도서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러시아 민족의 춤' 체험, 사할린 전통 가옥에 대한 토론, 화가 아나스타시아 우콜로와의 창작 활동, 심리학자 상담, '게세르: 부랴트 민족의 불멸의 유산' 전시 관람 등이 진행된다. '부메랑' 클럽에서는 '바다에 남긴 나의 발자국'을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리놀륨 판화와 바느질 없이 만드는 인형 제작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우정의 길: 수수께끼에서 게임으로'라는 인터랙티브 활동과 '엽서에 명언을 적어 보내세요'라는 도서관 우편 행사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특별 프로그램은 대통령 문화진흥재단 프로젝트로 마련된 문학 역사 게임 '당신은 섬 사람인가요, 아니면 본토 사람인가요?'다. 이 게임은 사할린 문학의 역사를 다룬다. 퀴즈 애호가들은 '우리끼리', '단결의 코드: 러시아 민족들', '함께-온 나라',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공간' 등의 행사에도 흥미를 느낄 것으로 보인다.

### Сахалинск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сила островитян на «Библионочь-2026» 18 апреля

Ежегодн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Библионочь»

пройдет в субботу, 18 апреля. Она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культурному разнообразию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едложит гостям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более чем на 30 тематических площадках,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чреждения.

Площадки заработают в 18:00. Каждый сможет сделать яркие снимки в фотозонах «Маскот: бродячая нежность» и «У самовара», посетить ремесленную ярмарку «Остров Дружбы» с изделиями местных мастеров,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Коробка добра» в поддержку центра «Доброе сердце» или расслабиться в уютной «Библиокофейне».

Обшир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радует островитян погружением в «Танцы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беседами о традиционных жилищах Сахалина, творческой встречей с художницей Анастасией Уколовой, консультацией психолога и выставкой «Гэсэр: Бессмертное наследие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Клуб «Бумеранг» обсудит тему «Мой след в океане».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учат создавать линогравюры и нешьювые куклы, а также пройдут интерактив «Маршрут дружбы: от загадки до игры» и акция библиопочты «Пришли цитату на открытку».

Особенностью вечера станет игра по литературному краеведению «Ты остров или материк?»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это проект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Любители викторин оценят мероприятия «Свой среди своих», «Код единства: народы России», «Вместе — целая страна» и «Уголок интроверта».

### 로스텔레콤, 가족 IT 마라톤 참가자 모집

'로스텔레콤'과 '.RU/.PF' 도메인 조정 센터가 제20회 전 러시아 가족 IT 마라톤의 시작을 발표했다. 기념 시즌에는 학생과 학부모, 가까운 친척으로 구성된 가족팀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가족팀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 없이 오프라인 여가를 보낸 경험을 창의적인 형태로 소개하면 된다.

대회는 '인터넷을 공부하고 그것을 관리하자' 프로젝트 웹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결과는 매년 5월 15일 기념하는 국제

가정의 날에 발표된다. 마라톤 참가자는 가족이 인터넷과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담은 창의적인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작품은 비디오, 인포그래픽, 장문 글 가운데 하나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2026년 5월 11일까지다. 주요 과제 외에도 가족팀은 보너스 과제를 수행하고 특별 부문 '가족 IT 마라톤 최고의 게시물' 상을 놓고 겨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참가팀은 2026년 4월 30일까지 IT 마라톤 개최 또는 자신의 참여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해당 링크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Ростелеком» приглаша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емейном ИТ-марафоне

«Ростелеком» и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оменов .RU/.PF объявляют о старте XX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емейного ИТ-марафона. К участию в юбилейном сезоне приглашают семейные команды, состоящие из школьник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готовых в творческой форме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м опыте офлайн-досуга без интернета и цифровых устройст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ят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Изучи интернет — управляй им». Результаты объявят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семьи,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ют 15 мая.

Участникам марафона предстоит подготовить творческую работу в одном из конкурсных форматов (видео, инфографика или лонгрид), которая расскажет о том, как их семьи отдыхают от интернета и гаджетов. Готовые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 до 11 мая 2026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Кроме основного задания, семейные команды могут выполнить бонусное задание и посоревноваться за приз в специа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пост о семейном ИТ-марафоне». Для этого команде до 30 апреля 2026 года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пост о проведении ИТ-марафона или своем участии в нем, опубликовать его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прислать ссылку в адрес оргкомитета конкурса.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p> <p>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